

Domus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건축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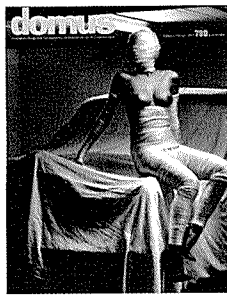
a+u

신건축

Domus

97년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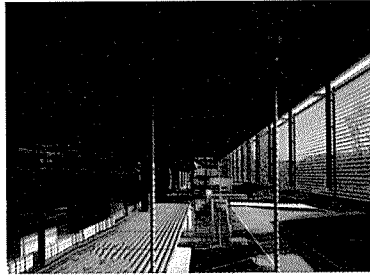
2월호에서는 건축에 있어서의 '포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또한 제 16회 베니스 비엔날



레중에 열린 '건축잡지의 미래'에 관한 워크숍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이밖에 포장을 예술행위로 승화시킨 작품들과 산업계에서의 포장 아이디어 상품들이 소개되었다.

포장

건축에 있어서의 포장, 피복, 즉 구조체와 외관의 문제는 고트프리트 쾰퍼 이후로 끊임없는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근대의 건축가들은 구조와 외관의 괴리를 부정하고자 했지만, 오늘날 건축의 피복이 그 구조로부터 독자성을 갖고 있다는



투어스 과학기술관(Franck Hammouténe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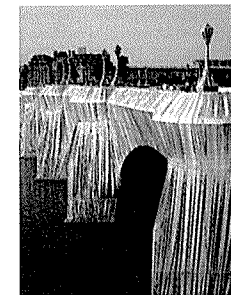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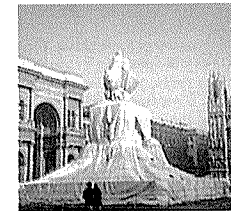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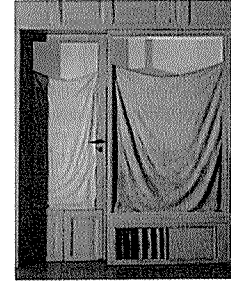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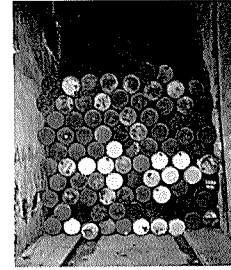
것은 인정된 사실이다. 형태로 나타나는 언어는 작가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해주는 매개물이 되는 것이다. 생각자체는 외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형태는 통신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필수불가결성에서 우리는 외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입면이 또하나의 차원으로써 독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건축의 예로, ▶체코의 전통적인 맥락과는 완전한 단절을 이루고 있는 건물로 두개의 은유적인 형상, 즉 미국 영화계의 진자와 프래드를 통해 그 나라의 자유화와 미국의 침공을 형상화하고 있는 Frank O. Gehry의 체코 프라하 오피스 건물 ▶검은 노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실제의 구조적 표피와 철제로 구성된 또하나의 표피가 노출과 숨김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Franck Hammouténe의 투어스 과학기술관(사진) ▶Pierre Hebbelinck의 벨기에 와림 P&V 보험사 사무소 ▶ARTEC의 오스트리아 빈 초등학교 ▶Carl-Viggo Høimebakk의 오슬로 벽돌집 ▶René van Zuuk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훈련센터 등이 소개되어 있다.

건축잡지의 미래에 대하여

지난 9월 제1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전세계 건축잡지사 편집장과 건축가들의 워크숍이 열렸었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 매체들 사이에서의 건축잡지"와 "건축계에 대한 건축잡지의영향"이라는 두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부분적 발제가 게재되어 있다.

기타

▶포장을 하나의 예술행위로 승화시킨 Christo와 Jeanne-Claude의 작품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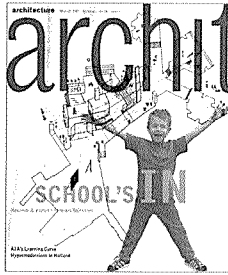
포장을 하나의 예술행위로 승화시킨 Christo와 Jeanne-Claude의 작품

계(사진) ▶산업계의 다양한 포장 아이디어와 그 상품들 ▶Michele De Lucchi와 Mario Rossi Scola의 극소주의적 형광등 작품 ▶Massimo Iosa Ghini의 상점 진열 디자인 ▶덴마크의 신세대 건축사무소 Chiasmus의 코펜하겐 항구 계획안 ▶이탈리아계 아르헨티나 예술가 Marina De Caro의 조각, 의상, 패션쇼, 행위예술을 넘나드는 파격적인 작품세계 ▶그래픽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평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건축가 Caccia Dominioni의 작품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약도 ▶Rudolf Steiner, Agrest and Gandelsonas의 작품집에 대한 소개 등이 다루어져 있다.

Architecture

97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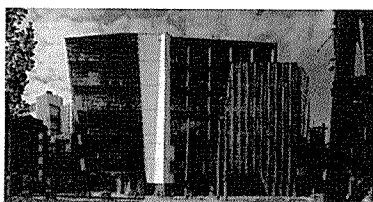
3월 호에서
는 Van Berkel+Bos의
작품을 중심
으로 네덜란
드의 초근대
주의 건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오늘날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에
의해 확대된 시공재료의 허와실에 대한
기사가 작품과 함께 게재되었다. 이밖에
건축계의 스카웃 열풍, 미국 시애틀의 도
시계획에 관한 기사도 실렸다.

네덜란드의 초근대주의 건축

네덜란드의 Ben Van Berkel과 부인
Caroline Bos가 이끌어 가는 Van
Berkel + Bos는 근대의 추상미술이 이루
어놓은 업적을 거대한 건축구조물로 전환
시키는데 있어 시각적으로 속도감이 느껴
지는 형태를 강조한다. 그것은 오늘날의
건축에 컴퓨터 등 현대적인 기술이 개입되
면서 변화된 디자인 과정에 따른 결과이
다. 특히 도면 작성의 요구에 의해 설립되
어 반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 스
튜디오는 방대한 정보량을 빠르게 처리하
면서 건축적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유
용한 도구로써의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다.
그들의 대표작으로 ▶에멘의 백화점 리노
베이션 ▶로테르담의 에라무스 교 ▶엔세
데의 국립미술관 리노베이션 ▶암스테르
담의 드 콜크 복합건물(사진), 그리고 프로
젝트로 ▶니에메겐의 헤트 발코프 미술관
▶암스테르담의 보르네오 스포렌부르그
주거단지과 정신요양원 ▶나아덴의 모비
우스 주택 등이 소개되어 있다.



암스테르담의 드 콜크 복합건물

테크놀로지와 시공

▶Moore Ruble Yudell Architects의
UCLA 파월 도서관 리노베이션에 이용
된 것으로 천정의 조각 패턴을 보존하면
서 동시에 내진성을 강화하는 구조법, ▶
Internet이나 WWW의 기술을 이용하
되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로, 지
역간 또는 사무실간 정보를 외부에 노출
시키지 않고 교환, 전달하는데 아주 유용
하여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그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Intranet(또는 Internal
Web, Private Internet) ▶내진성이 강
화된 목구조 ▶CD-ROM이나 정보 통신
계의 발달에 의해 확대된 시공 재료 선택
의 허와 실 등이 다루어져 있다.

기타

▶Kennedy & Violich Architecture
이 계획한 미국 오하이오주 캔튼 컨트리
학교의 증축 ▶미국 워싱턴 시 중심가에
세워진 Eric Colbert & Associates의
비영리 의료센터 (사진) ▶전통과 양식
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둔 Moore Ruble
Yudell Architects의 UCLA 파월 도서
관 리노베이션 ▶Stanford White에 대
한 2권의 신간소개 ▶거대한 프로젝트를
거처지는 않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재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미국 시애틀
의 도시 계획 ▶이슬람계의 건축계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Karim Aga
Khan 4세와의 인터뷰 ▶미국 워싱턴의
링컨기념관과 워싱턴기념관이 형성하고
있는 국립공원에 들어서 그 시각적 축을
해치게 될 2차세계대전 기념관의 건립에
대한 반대 ▶700년전에 건축된 파키스
탄 산간지역 요새의 성공적인 재활용계
획 ▶건축계의 스카웃전쟁에 대해 다루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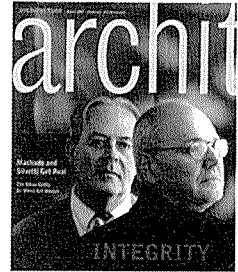


워싱턴의 비영리 의료센터(Eric Colbert & Associates 작)

Architecture

97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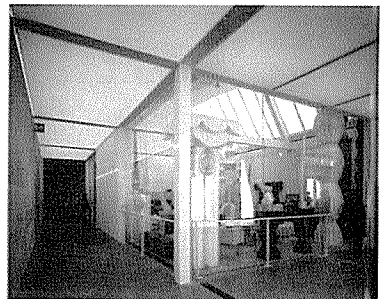
4월 호에는
「근작」으로
Renzo Pi-
ano가 설계
한 Brancu-
시튜디오,
Toyo Ito의
일본 나가오



카극장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태생으로
보스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Rodolfo Machado와 Jorge Silvetti를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그들의 최근 작품
활동 등을 기사로 다루었다.

근작소개

▶Renzo Piano의 Brancusi 스튜디오
Brancusi는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오두막 작업실을 하나의 완전한 작품으
로 여겼기에 그의 스튜디오를 다시 건축
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파리 풍
피두 센터의 재건축계획 일환으로 바로
옆의 대지에 Renzo Piano에 의해 만들
어진 Brancusi 스튜디오는, 대리석과
철재재료들의 조합을 통해 밝고 정돈된
공간을 만들어내어, 그의 조각들을 총체
적으로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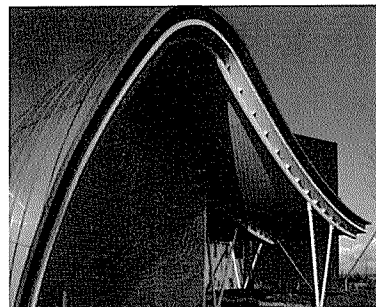
Brancusi 스튜디오(Renzo Piano 작)

▶Rodolfo Machado와 Jorge Si-
lvetti의 근황

아르헨티나 태생의 이들 건축가들은 80
년대 건축계에서 포스트모던 이론을 통
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보스턴
을 중심으로 활발한 건축 설계활동을 벌
이고 있는 이들과의 인터뷰와 아울러, 최

근의 대규모 작품인 게티 센터(Richard Meier에 의해 설계된 부분의 이웃한 대지에 계획)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Toyo Ito의 일본 나가오카 극장 빛과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건축적 실험으로 명성을 얻은 Toyo Ito의 최근 작품으로, 불투명한 솔리드, 투명한 솔리드, 투명한 보이드 등이 교차하며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파동치는 지붕의 형태를 “언덕”, 그 내부의 철재기둥들을 “숲”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이는 나가오카의 자연환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일본 나가오카 극장(Toyo Ito 作)

건축 디자인계의 도둑

건축가의 디자인이 다른 건축가나 건축주들에게 도난당하는 일이 많다. 즉, 한 건축가가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 나면 건축주는 그를 해고하면서 더욱 값이 싼 다른 건축가를 고용하여 선행된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는 디자인의 저작권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이

틀림없다. 건축주들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신들에게도 저작권이 일부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것을 적용하고 문서화한 건축가의 디자인에 저작권이 한정되어 있음을 이미 밝혔다. 그러나 건축가들은 법정투쟁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아울러 건축주들의 신임을 잃게 된다는 점 때문에 그냥 눈감고 넘어가 버리기 일수다. 법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순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지양하기 위해서는 계약시 항목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것을 문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테크놀로지와 시공

▶프랑스 파리의 한 기차역을 개조하여 그 외관을 보존시키면서 내부를 상가와 스튜디오로 재생시킨 Patrick Berger의 작품에서 사용된 구조법 ▶설계사무실의 중역들이 회사 인력으로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현상에 대한 문제 ▶독일 Nemetschek Systems의 Allplan FT와 프랑스 BAGH Technologies의 Architrion VI 등 새로 나온 CAD 소프트웨어 ▶유리섬유를 이용한 조명기법 ▶새로 나온 조명기구 소개 등을 다루고 있다.

건축가와 자동차

자동차는 기계공학과 함께 미적인 특성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건축가들에게 더더욱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자동차 선택유형은 매우 특출하며, 실제로 Le Corbusier, Walter Gropius, Buckminster Fuller는 자동차를 직접 디자인하기도 했다. 기능과 함께 아름다움이 강조되며, 대량생산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된다는 건축의 이상이 이미 자동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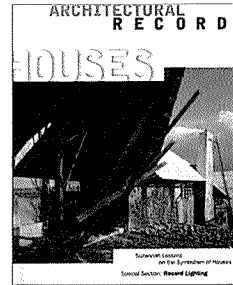
기타

▶Francois de Menil의 휴스턴 박물관 비잔틴 프레스코화 전시관 ▶예술계의 저명한 후원자인 Dominique de Menil과의 인터뷰 ▶Shelton, Mindel & Associates의 미국 뉴욕 팬트하우스 등이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al Record

97년 4월호

이번호에서는 주로 「주택건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각 건축주의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서도 건축적 의미화에 성공한 8개의 주택건축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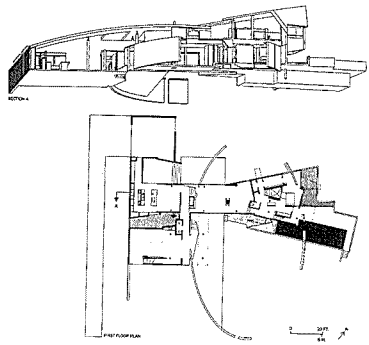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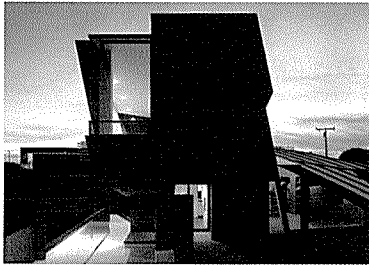
이밖에도 「건축기행」편에서는 1950년대에 Carlos Scarpa에 의해 설계된 이탈리아의 Antonio Canova 미술관이 소개되었으며, 다양한 조명효과와 관련상품들에 대한 기사도 실려 있다.

주택 건축

주택은 건축주에게나 건축가에게나 하나의 '꿈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주에게는 자신의 요구와 특성에 부응하는 개인적인 생활공간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고, 건축가에게는 소규모의 건축행위이니만큼 건축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건축가의 의도에 더욱 가까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주택은 그리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축가들이 피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여기에 소개된 8개의 주택은, 건축주 각각의 개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건축적인 의미화에도 성공하고 있는 모범적인 예들이다.

▶Morphosis의 미국 캘리포니아 블레이크 주택

블레이크 주택의 부부 건축주는 원래 있었던 주택이 화재로 전소된 바로 그 대지에 지어진만큼 전혀 새로운 형태를 요구했으며, Morphosis는 다양한 매스들의 중첩을 통해 시작과 끝, 내부와 외부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디자인을 이루어냄으로써 그것을 충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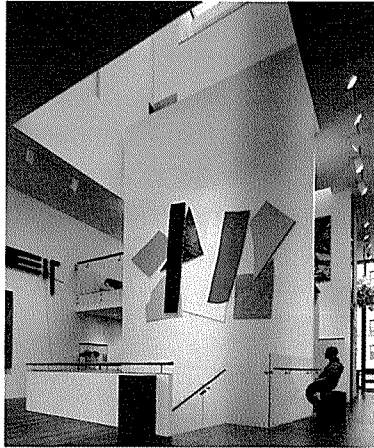
미국 캘리포니아 블레이크스 주택(Morphosis 作)

▶Rick Joy Architect의 미국 아리조나 텍스 코벤트 에베뉴 스튜디오

용기종기 모여있는 소규모의 주택들과 그 사이로 작은 골목과 정원들로 특징지어지는 텍스 지방에서, Rick Joy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그것을 형성한 기후와 재료적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를 가지면서도 이웃들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을 만들어내었다.

▶Tod Williams, Billie Tsien and Associates의 미국 뉴욕 도심주택
뉴욕 중심가의 좁고 긴 대지에 들어선 이 현대적인 형태의 주거는 단순해지기 쉬운 공간구성을 다양한 층고를 통해 변화를 주고 있으며, 가구, 미술품과 같은 디테일 디자인에까지 깊이 관여함으로써 이상적인 도심주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그 외에 ▶Susan Rodriguez의 미국 메인주 섬 주택 ▶Scogin Elam and Bray Architects의 미국 조지아주 산악 주택 ▶Krueck & Sexton의 미국 시카고 벽돌-유리 주택 ▶Mockbee/Coker Architects의 미국 테네시 강변 주택 ▶RoTo Architects의 미국 뉴저지주 테이거 주택 등이 소개되어 있다.



미국 뉴욕 도심주택(Tod Williams, Billie Tsien and Associates 作)

건축기행 시리즈 - Carlos Scarpa의 Antonio Canova 미술관

전세계의 유명 건축물들을 방문하고 있는 사진작가 Richard Bryant가 Andrea Palladio의 빌라를 찍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하였다가 18세기 조각가 Antonio Canova의 조각박물관이 있는 한 작은 마을을 찾았다. 1950년대에 Carlos Scarpa에 의해 설계된 이 박물관에서, 솔리드와 보이드, 빛을 교묘하게 조합시키는 Scarpa의 건축과 Canova의 조각들을 통해 건축과 미술의 가장 이상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었다.



Antonio Canova 미술관(Carlos Scarpa 作)

조명

▶부엌과 응접실을 위한 조명계획 ▶주택에서 조명의 효과와 그 특성들 ▶미국 보스턴 과학박물관 갤러리 카페의 조명 계획 ▶새로운 조명 상품들 등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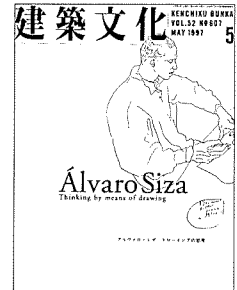
기타

▶목조건축의 효용성 ▶새로 나온 타일 재료 디자인에 대한 소개가 게재되어 있다.

건축문화

97년 5월호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알바로 시자(Alvaro Siza)의 작품과 드로잉이 소개되었다. 'Thinking



by means of drawing'이란 부제가 붙은 이번 특집에서는 그의 드로잉들을 통해 그가 작품을 완성해가는 독특한 과정을 보이고자 했으며 시자 자신이 쓴 에세이 4편을 포함하여 9편의 에세이가 실렸다.

특집 - 알바로 시자 'Thinking by means of drawing'

알바로 시자는 반복적인 드로잉의 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그의 건축과 공간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알토와 라이트, 포르투제로부터 배운 것을 소화해내고, 포르투갈의 환경을 반영하는 특별한 생명력을 지닌 건축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그의 주요 작품들과 최근작들, 그리고 이들을 만들어낸 드로잉들이 소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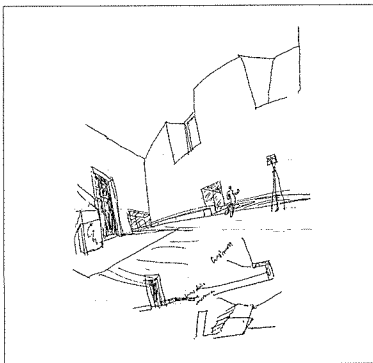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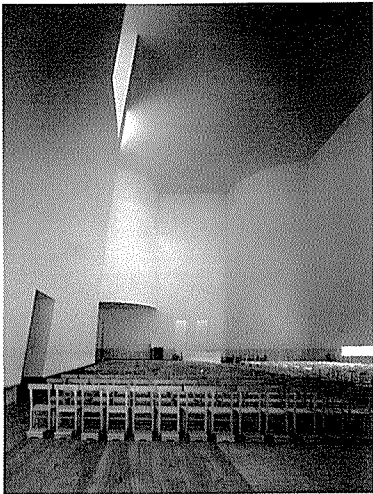
▶알바로 시자의 에세이

그의 에세이로 '재료에 관하여', '건축에 관한 8가지 요점', '주택 디자인하기', '여행에서의 스케치'의 4편이 소개되었다. 이 중 '건축에 관한 8가지 요점'에서는 그가 건축가로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열거되었다. 그의 프로젝트는 대지를 방문했을 때부터 이루어지며, 그는 카페에서 디자인하고, 주민들과의 오랜 논의를 거치며,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을 의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방법론이나 이론을 갖고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관심사는 지극히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직인의 사고와도 같은 것이다.

▶최신작

- 마르코 드 카나베제스의 교회와 교구센터(1990 - , 포르투갈)

교외에 있는 교구를 위해 만들어진 이 카톨릭 교회의 형태는 내부공간에 동서방향의 신랑을 가지며, 정통적 구성을 따르고 있다. 교회의 건축은 '혁신적이지도 않고, 또한 경험에 의한 것도 아닌' 이라는 시자의 말과 같이 관습적인 형태와 일체가된 감정의 해석, 그리고 이것의 현대적인 구현인 것이다. 작품의 사진, 도면과 함께 그의 드로잉이 소개되고 있다. 드로잉을 통해 보이는 그의 작품에 대한 이미지는 정확하며 구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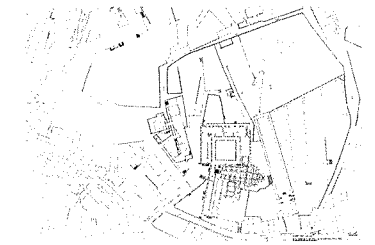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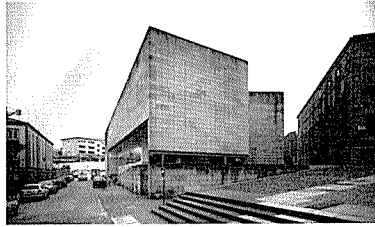


마르코 드 카나베제스의 교회와 교구센터(Avaro Siza 作)

▶주요작품

그의 주요작품들은 1986 - 95의 시기와(후기) 1961 - 86(전기)의 두시기로 구분되어 소개되고 있다. 후기의 작품들로는 포르투대학 건축학부, 갈리시안 현대미술센터, 아베이로대학 도서관과 종수탑, 세투발 교원양성학교가 소개되었고 전기의 작품들은 비교적 더 작은 규모의 작품들로, 레사의 스위밍풀, 핀토 & 소

또의 마요르 은행, 보우사의 집합주택, 키타 다 말라괴이라의 주택개발지구, 보르게스 & 이르망의 은행이 소개되었다. 그밖에 연재물로 '공간의 시네마토 그라피' 제7회 '유로씨의 공간방랑'과 '공동체 건축의 아키올로지' 제6회 '시간이여 멈춰라'가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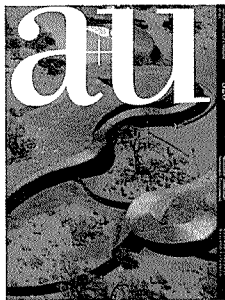


갈리시안 현대미술센터(Avaro Siza 作)

a+u

97년 5월호

이번 호에서는 Sustainable Architecture / Sustainable Environment' 라는 제목의 특집이 실렸다. 이는 건축과 Ecology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이를 주제로 한 작가들의 작품과 질문들, 그리고 에세이들이 소개되고 있다.



특집 - 'Sustainable Architecture / Sustainable Environment'

이 특집은 지구환경의 파괴나 에너지 고

갈 등의 문제를 안고있는 오늘날에 있어, Ecology나 Sustainability의 개념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갖는 일이 다급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로서 인더스트리얼 에이지로부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에이지로 이행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던 시대로부터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시대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으로, 21세기의 사회를 보여주는 것의 하나일 것이다.

건축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Ecology나 Sustainability개념을 무시한 채로는 앞으로의 건축을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특히 이 분야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유럽에 있어서는 이 개념에 의해 건축디자인이 근대건축 이래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호의 특집에서는 '도시계획', '건축', '이론'의 3개 영역에서 이 개념에 대한 어프로치를 실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상당히 테크니컬한 어프로치로부터 전주민주화나 자연에 귀착하는 듯한 원시적이고 버나쿨러한 어프로치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에콜로지건축에의 정당한 어프로치인가를 판정하기는 곤란하며, 이들이 혁신적이며, 현실적이고, 명확한 결과를 얻어낼지도 말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에콜로지 건축에의 어프로치는 작은 어프로치들의 축적된 산물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 최초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이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에콜로지 건축에의 확실한 수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세계공통의 기준으로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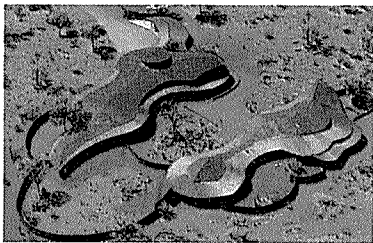
▶에세이로는 Peter Buchanan의 "Steps up the ladder to Sustainable Architecture"가 소개되었다.

▶(Questionnaire)에서는 Kimmo Liimatainen외 11인에게 '에콜로지란 무엇인가?', '에코-건축, 혹은 에코-시티라는 말에 가장 근접하는 예는 무엇일까?'라는 공통된 질문이 주어지고 이에대한 답변들이 소개되었다.

▶작품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테크니컬한 접근을

한 예(쿠마 겐코의 Eco Particle Project / Webler + Geisser의 Götz Headquarters)를 비롯, 원시적이며 버나쿨러한 접근을 한 작품(Gregory Burgess의 Uluru-Kata Tjuta Cultural Center) 등 5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Uluru-Kata Tjuta Cultural Center(Gregory Burgess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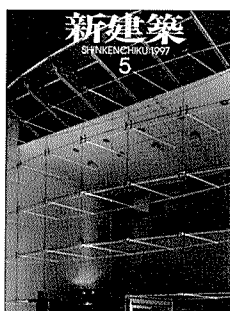
▶대담

Richard Rogers와 Abe Rogers, 시게루 반과의 대담이 실렸다. 주제는 'Paper Tube Architecture, Sustainability and Responsible Citizenship'으로 시게루 반이 재료로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가 화두가 되어 로저스의 지환성(持環性)을 가진 건축, 건축을 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생각에까지 이야기가 발전되었다.

신건축

97년 5월호

이번 호에서 작품으로는 시게루 반의 JR 타자와 교驛/ 타자와고 관광정보센터, 후루이찌와 다카하시의 공



동작품인 하나마끼 종합체육관과 후루이찌의 두 개의 프로젝트, 아오키 준의 遊水館 외 14작가의 16개 작품이 소개되었다.

작품

▶후루이찌의 하나마끼 종합체육관과 두 개의 프로젝트

파동치는 듯한 거대한 지붕이 덮여진 이 체육관은 지붕을 지지하는 구조의 상세한 디테일이 소개되었다. 그의 두 개의 프로젝트(키타 아이즈 村設場 복합청사, H공원 글래스 하우스)에서는 '벽에서 기동으로'라는 제목이 붙은 그의 에세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동과 열려진 공간이 주된 테마가 되고 있다. 그는 기동의 공간을 언급하면서 도미노, 유니버설, 일본건축, 투명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H공원 글래스 하우스(후루이찌 작)

▶遊水館(유스이랑) - 아오키 준 설계

물의 공원안에 위치한 이 풀장은 공원안의 호수속에 자리잡고있는 작은 섬에 위치하고 있다. 원형의 평면을 지닌 이 건물은 호수 밖의 부분과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건물의 내부를 관통하여 풀의 위를 지나쳐 가게 된다. 방문자는 건물의 내 외부의 물 위를 걸으며 이들을 조망할 수 있다. 설계자는 공공의 공간속에서의 유료 Zone/ 유료공간안에서의 공공 Zon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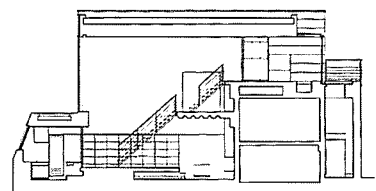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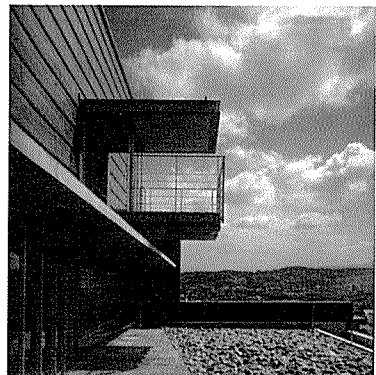
遊水館(유스이랑) (아오키 준 작)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 미즈히로 이치로 설계

각각 아트 공방, 뮤직 공방, 드라마 공방, 에코라이프 공방로 이름지어진 실들과 호반을 무대모한 오픈 스페이스, 레스토랑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각 살마다 다른 모습을 띄는 목구조로 된 천정을 가지고 있다. 각 공방마다 독특한 외관을 가지면서도 전체적 통일성을 이루어내고 있다.

▶스튜디오 KAZ / G펜트하우스 - 마쯔시마 켄 설계

스튜디오 KAZ는 단순하면서 명확한 조형적 논리가 보이는 매스에 노출 콘크리트와 철재, 유리 와 석재, 슬레이트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의 풍부함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뛰어난 연결부의 처리로 두 개 매스의 조합으로만으로도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G펜트하우스에서도 스튜디오 KAZ에서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조형언어와 다양한 재료의 사용이 돋보인다.



스튜디오 KAZ/G펜트하우스(마쯔시마 켄 작)

연재

▶TOKIO계획 1997

Project - 05 Printed City : 유리의 진화, 그리고 환경정보와 환경기능의 프린트기술은 모더니즘의 균질공간을 갱신한다. 더우기 유리에 의해 만들어져, 그 표면에 정보로서의 기능이 프린트된 코트 하우스의 집적은 반투명한 정보의 미공 도시를 만들어낸다.